

IMF 경제위기 이후 대학생의 소비지출 행태 변화

이 은 희* (인하대학교 소비자동학과 교수)

김 정 훈 (원광대학교 가정복지정보 전공 교수)

본 연구는 최근 IMF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이로 인한 취업난과 소득 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각 가계들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세대에 비해 경제적 풍요로움과 여유 속에 성장해 온 대학생들의 소비지출 행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이 지각한 IMF이전과 이후의 대학생들의 소비지출 행태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으로는 대학생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97학번 이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2001년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배포된 200부 중 총16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그리고 IMF 전과 후의 소비지출 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 중 McNemar의 대응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돈 액수는 IMF 이전에 비해서 IMF 이후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용돈 부족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조달방법에 있어서는 IMF 이전에 비해서 아르바이트로 조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IMF 이전이나 IMF 이후나 부모님에게서 조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용돈 사용을 소비비목별로 살펴보면 IMF 이전에는 유희여가비의 지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IMF 이후에는 식비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게에 있어 앵겔계수가 높아진 것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할 수 있다. 또한 식사 장소도 학교 근처의 음식점에서 학교내의 구내 식당으로 바꾼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주된 변화 이유는 가격 때문이었다.

둘째, 의류 구입에 있어서는 의류 선택기준으로 가격을 중시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디자인, 유행,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브랜드 중시 경향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의류 구입장소에 있어서도 백화점을 찾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동대문 또는 남대문 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IMF 이후 데이트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트 비용 부담자도 IMF 이전에는 주로 남자가 담당하던 것이 IMF 이후에는 돈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넷째, IMF 경제 위기에 따른 심리적 변화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IMF 이후 소비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1%의 응답자가 IMF를 실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소비생활 패턴이 감소해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4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반면 변화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44.9%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